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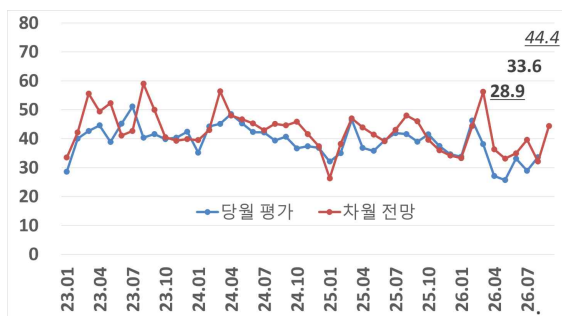
I. 2026년 8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6년 9월 전망

■ 8월의 경기평가는 소폭 상승, 차월 전망은 불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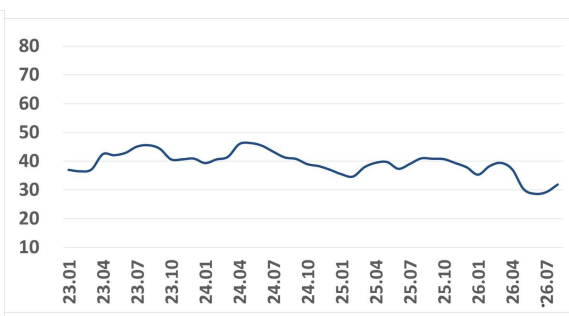
- 8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3.6으로 전월(28.9)보다 소폭 상승했지만(+4.7p), 전년 동월(41.6)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음(-8.0p). 차월(44.4)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10.8p) 최근 악화된 중동상황 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은 낮음. 금월 조사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체들은 인건비와 인력수급, 공사수주 감소,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함.
- 수도권은 38.9(39.6→38.9)로 전월과 비슷했으며(-0.7p), 지방은 31.4(24.3→31.4)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7.1p).

〈표-1〉 2026년 8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6년 9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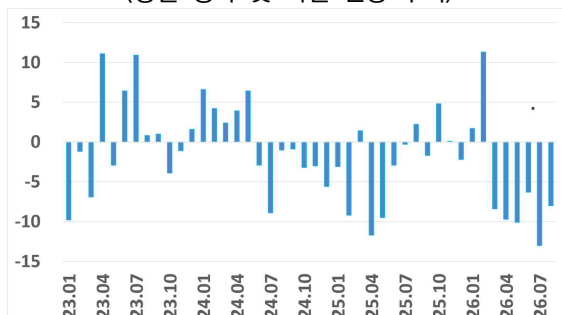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6년 8월 평가	33.6	41.6	38.9	31.4	36.8	37.8
2026년 9월 전망	44.4	46.0	43.1	45.0	50.0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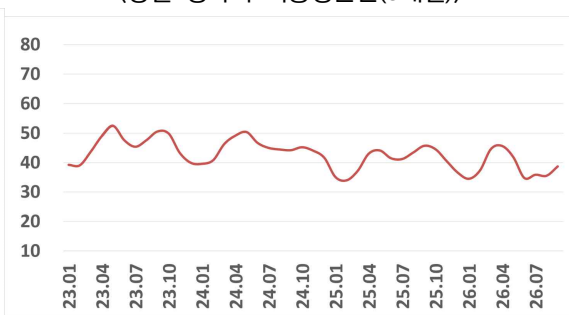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전망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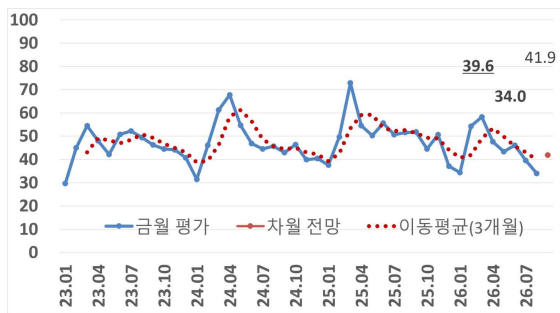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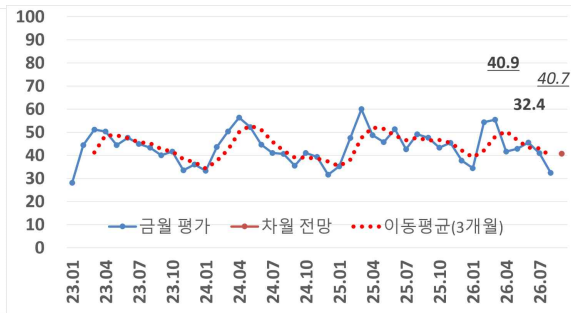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34.0(39.6→34.0)으로 소폭 하락했으며(-5.6p), 전년 동월(51.6) 대비 현저히 낮았음(-17.6p). 하도급수주도 32.4(40.9→32.4)로 전월에 이어 하락함(-8.5p). 공사원가의 상승에 따른 입찰경쟁에서의 부담,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업역침해, 분양시장 등 전반적인 침체에 따른 수주 감소, 정부의 시장규제 등이 주된 문제로 지적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70.8→47.2)이 크게 하락했으며(-23.6p), 지방(26.1→28.4)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함(+2.3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79.2→38.9)에서 크게 하락했으며(-40.3p). 지방(24.3→29.6)은 전월 보다 소폭 상승함(+5.3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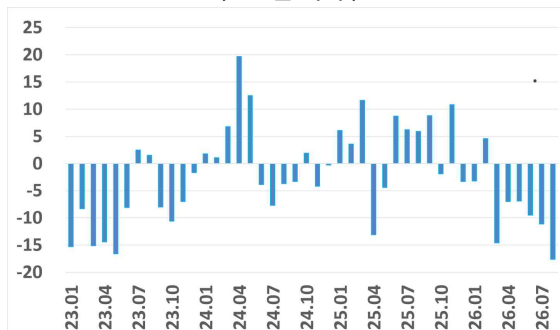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6년 8월 평가	34.0	51.6	47.2	28.4	57.9	32.9
	2026년 9월 전망	41.9	50.9	58.3	34.9	71.1	48.8
하도급 수주	2026년 8월 평가	32.4	49.1	38.9	29.6	60.5	31.7
	2026년 9월 전망	40.7	48.4	52.8	35.5	60.5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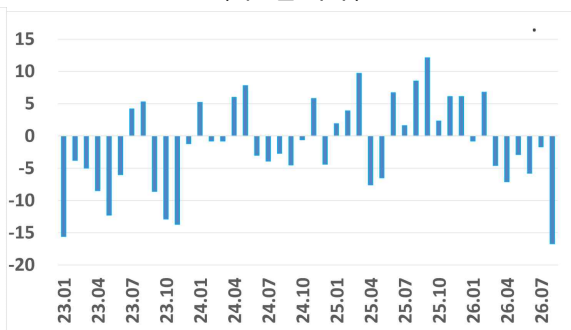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소폭 상승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60.2(54.1→60.2)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6.1p), 차월(56.0)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4.2p). 응답업체들은 수주현황이 일부 개선되더라도 공사대금의 수금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공공공사와 함께 개인발주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대금수금과 공사수주가 모두 어렵다고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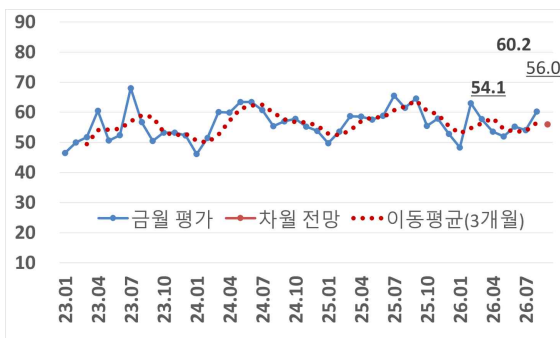
- 수도권(70.8→68.1)은 전월과 유사(-2.7p), 지방(46.8→56.8)은 상승함(+10.0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8.1(52.2→58.1)로 상승했지만(+5.9p) 전년 동월(62.7)보다 낮은 수준이었음(-4.6p), 차월(55.2)에도 별다른 개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2.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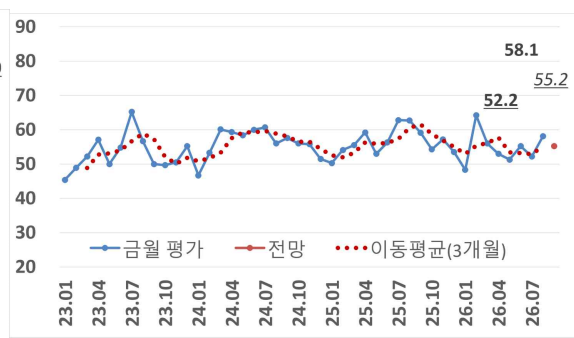
- 수도권(72.9→66.7)은 소폭 하락(-6.2p), 지방(43.2→54.4)은 상승함(+11.2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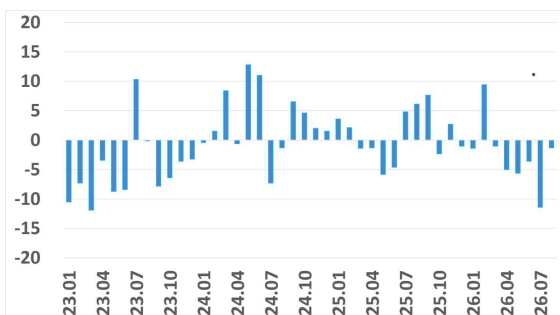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6년 8월 평가	60.2	61.5	68.1	56.8	76.3	56.1
	2026년 9월 전망	56.0	61.5	65.3	52.1	78.9	54.9
자금조달	2026년 8월 평가	58.1	62.7	66.7	54.4	76.3	56.1
	2026년 9월 전망	55.2	59.6	58.3	53.8	71.1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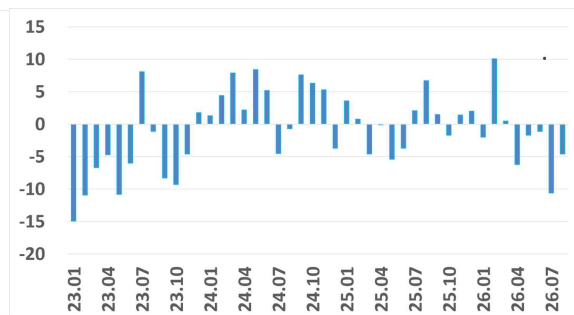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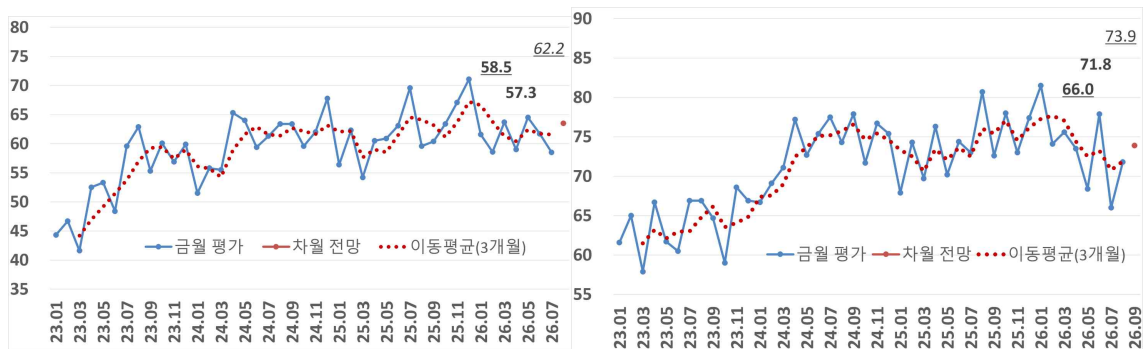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전월과 유사, 기능인력수급은 소폭 상승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57.3(58.5→57.3)으로 전월 수준이었으며(-1.2p) 전년 동월(59.6)보다 조금 낮았음(-2.3p), 기능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일용근로자 채용 등 건설노조에 대한 지적이 금월에도 지적됨.
- 수도권(58.3→52.8)은 소폭 하락(-5.5p), 지방(58.6→59.2)은 전월 수준임(+0.6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1.8(66.0→71.8)로 소폭 상승했지만(+5.8p), 전년 동월(80.7)에는 미치지 못했음(-8.9p). 기능인력의 수급문제는 변함없는 상황임.
- 수도권(66.7→69.4)은 소폭 상승(+2.7p), 지방(65.8→72.8)은 상승함(+7.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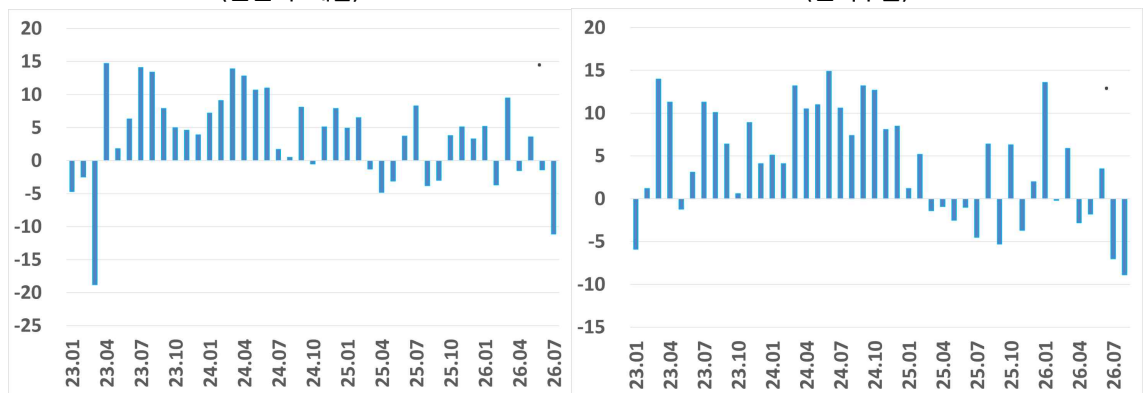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6년 8월 평가	57.3	59.6	52.8	59.2	52.6	68.3
	2026년 9월 전망	62.2	62.7	55.6	65.1	60.5	68.3
인력수급	2026년 8월 평가	71.8	80.7	69.4	72.8	63.2	79.3
	2026년 9월 전망	73.9	79.5	66.7	76.9	57.9	82.9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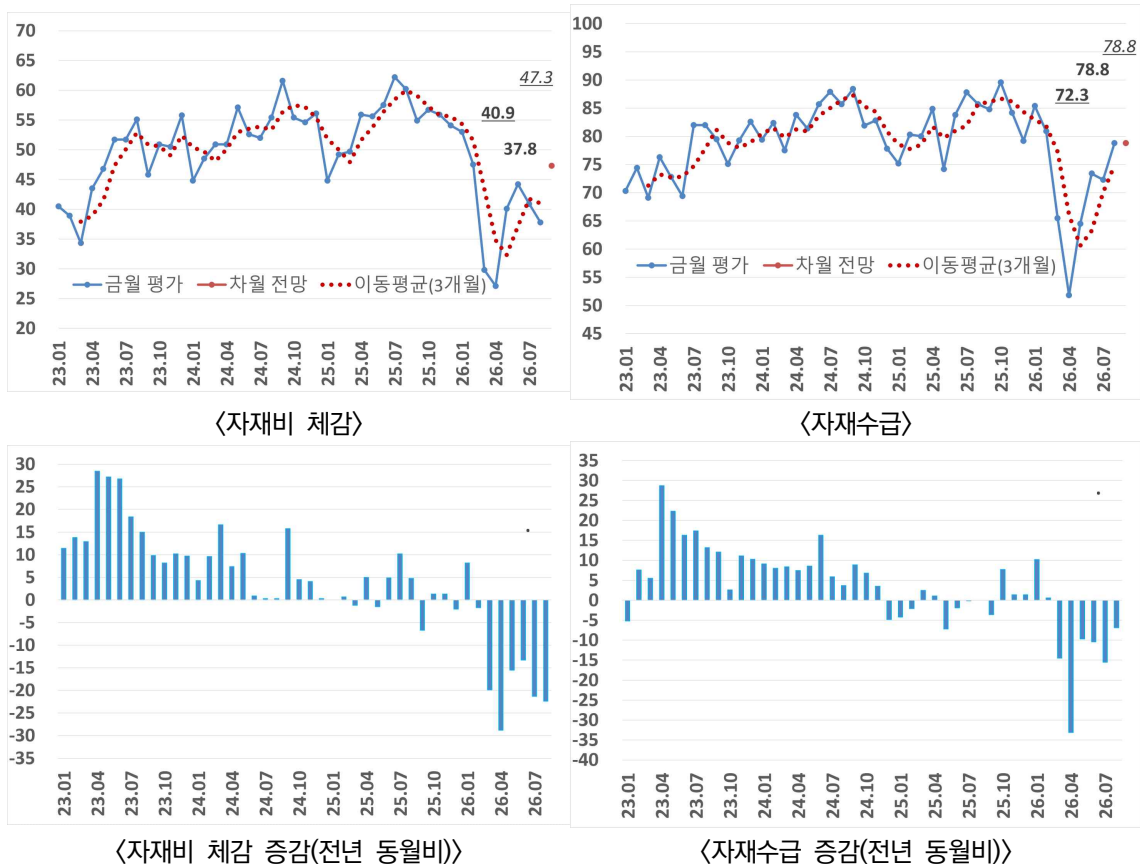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²⁾)

■ 자재비지수는 연이은 하락, 자재수급지수는 소폭 상승

- 자재비³⁾ 경기실사지수는 37.8(40.9→37.8)로 전월에 이어 하락함(-3.1p). 차월(47.3)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9.5p), 지금은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려움.
 - 수도권(35.4→33.3)은 소폭 하락(-2.1p), 지방(43.2→39.6)도 소폭 하락함(-3.6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8.8(72.3→78.8)로 소폭 상승했으며(+6.5p), 차월(78.8)도 동일할 것으로 전망됨(+0.0p). 아스콘, 페인트, 혼화재, 레미콘 등의 수급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임.
 - 수도권(87.8→73.6)은 크게 하락(-14.2p), 지방(73.0→81.1)은 상승함(+8.1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6년 8월 평가	37.8	60.2	33.3	39.6	47.4	43.9
	2026년 9월 전망	47.3	57.8	37.5	51.5	42.1	59.8
자재수급	2026년 8월 평가	78.8	85.7	73.6	81.1	60.5	85.4
	2026년 9월 전망	78.8	83.2	72.2	81.7	60.5	86.6



2)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3)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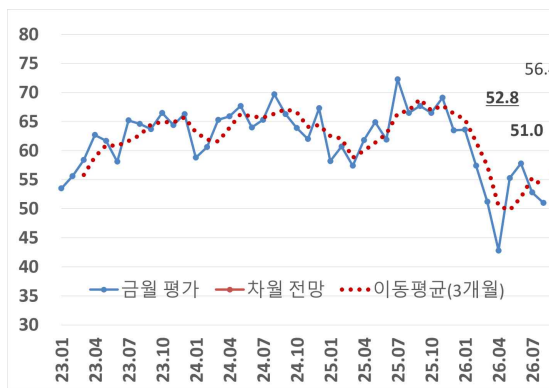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전월 수준, 장비수급지수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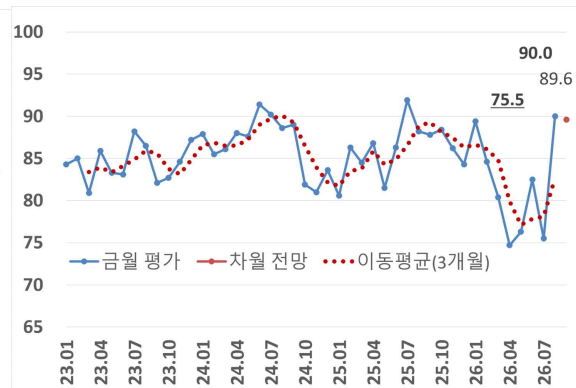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1.0(52.8→51.0)으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1.8p), 차월(56.4)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5.4p). 다만 중동사태 악화 등에 따른 유가상승 요인은 장비임대료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수도권(50.0→48.6)은 전월과 유사(-1.4p), 지방(54.1→52.1)은 소폭 하락함(-2.0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90.0(75.5→90.0)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14.5p), 차월(89.6)에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0.4p).
 - 수도권(85.4→88.9)은 연이어 소폭 상승(+3.5p), 지방(71.2→90.5)은 상승함(+19.3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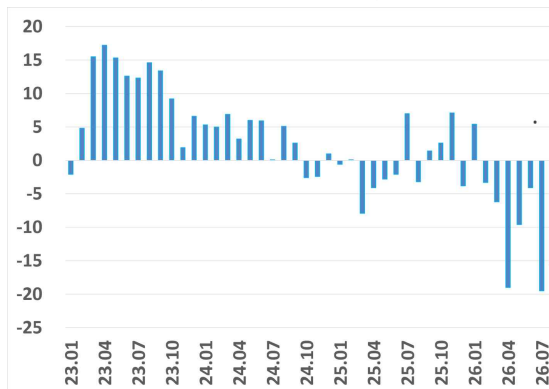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임대료 체감	2026년 8월 평가	51.0	66.5	48.6	52.1	52.6	63.4
	2026년 9월 전망	56.4	67.1	54.2	57.4	57.9	68.3
장비수급	2026년 8월 평가	90.0	88.2	88.9	90.5	71.1	92.7
	2026년 9월 전망	89.6	87.0	83.3	92.3	71.1	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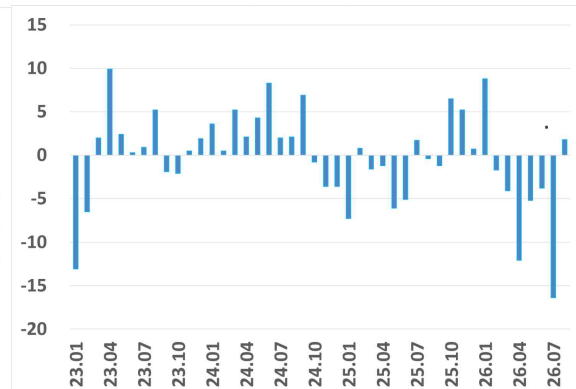
〈장비임대료 체감〉



〈장비수급〉



〈장비임대료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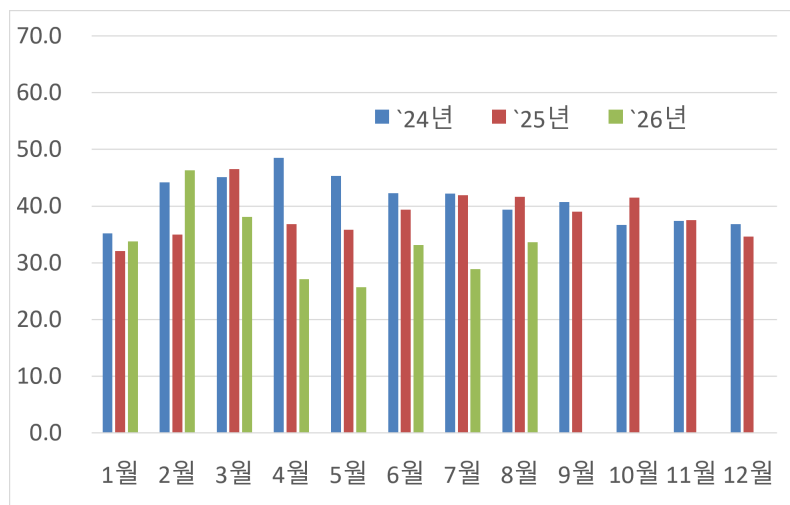
〈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6년 8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3.6	41.6	38.9	31.4	36.8
		차월 전망	44.4	46.0	43.1	45.0	47.6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34.0	51.6	47.2	28.4	57.9
		차월 전망	41.9	50.9	58.3	34.9	71.1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32.4	49.1	38.9	29.6	60.5
		차월 전망	40.7	48.4	52.8	35.5	60.5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60.2	61.5	68.1	56.8	76.3
		차월 전망	56.0	61.5	65.3	52.1	78.9
	자금조달	금월 평가	58.1	62.7	66.7	54.4	76.3
		차월 전망	55.2	59.6	58.3	53.8	71.1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57.3	59.6	52.8	59.2	52.6
		차월 전망	62.2	62.7	55.6	65.1	60.5
	인력수급	금월 평가	71.8	80.7	69.4	72.8	63.2
		차월 전망	73.9	79.5	66.7	76.9	57.9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37.8	60.2	33.3	39.6	47.4
		차월 전망	47.3	57.8	37.5	51.5	42.1
	자재수급	금월 평가	78.8	85.7	73.6	81.1	60.5
		차월 전망	78.8	83.2	72.2	81.7	60.5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51.0	66.5	48.6	52.1	52.6
		차월 전망	56.4	67.1	54.2	57.4	57.9
	장비수급	금월 평가	90.0	88.2	88.9	90.5	71.1
		차월 전망	89.6	87.0	83.3	92.3	71.1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